

“모든 존재 공존하는 불국정토 만들어야죠”



재가불교운동 10년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우리는 선우 이사장 박광서 VS 김동훈 경불련 운영위원장

실천을 통한 정법구현의 길을 모색해온 대표적 재가단체인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와 사회정의실현에 앞장서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이 10월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선우'와 '경불련' 창립때부터 돈독한 불심과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단체를 이끌어온 박 이사장과 김 운영위원장이 한자리에 앉았다. 재가불교의 지도자인 두사람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선우'와 '경불련'의 10년을 돌아보고 재가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본다.

김동훈: 우리는 선우이하 선우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불련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간 선우가 해 온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말씀해 주시죠.

박광서: 불교계의 대소사들이 대부분 스님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선우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재가불자들이 스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재가불자들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가불자들이 수행과 사회의 문제를 서로 연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우의 10년은 그 두 가지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의미있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저 역시 선우가 재가결사를 선보이는 등 실행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가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뿌리도 선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급진과 보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재가연대입니다. 이는 폭넓은 연령층과 이념이 교차되고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불련 역시 그런 재가운동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동훈: 경불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출발했는데, 당시 200여 재가불자들이 경실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활동해 본 결과, 불교적 차원에서 사회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생겨 경불련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경불련은 초창기에 시민운동의 목표를 불교계로 가져오고, 불교계의 이슈를 사회 문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했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핵불, 종교편향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불교라는 정체성 찾기가 어려워지더군요. 이

러한 문제의식 아래 불자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인 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을 돕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전문 사회운동가나 지식인들이 배출되지 않고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새로운 한계가 되고 있지요.



박광서

72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 미국 웨이치 주립대의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귀국 후 한국고수불자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재가불교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91년 우 리는 선우를 창립했다. 현재 참여 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인도사망영양문제 공동대표,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다.

승가와 재가 역할분담 '따로 또 같이' 시간과 돈 2% 수행과 봉사에 쓰자

박광서: 불교계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유능한 젊은 불자들이 '불교적 삶이 좋다' 혹은 '불교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불련은 제3세계 구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외국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김동훈: 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불국정토



◀우리는 선우 박광서 이사장(왼쪽)과 경불련 김동훈 운영위원장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란 모든 존재들이 공존해야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박광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과 달리 정신문화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시아 불교국가들 중에는 서구문화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 고유 정신이 마비되고, 불교문화 역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연대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불교국가의 승가를 지원하는 이유도 고유의 정신문화를 지켜보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선우는 가장 포괄다운, 캄보디아나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불자로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김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상담하면서 한국에 오는 이유는 그곳에서 일할 직장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지난 10년간 경불련과 선우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동훈: 여러 대안을 세우고 불교계는 물론 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재가불교운동이나 불교사회운동 분야에서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광서: 앞으로 불교에서 사회참여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불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와 관련된 교육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승가교육 과정에 마련돼야 합니다. 기관의 지도급이라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불자나 일반인보다 훨씬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훈: 재가불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재가불교 및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의식화되고 무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재들이 다시 배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불교운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교계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광서: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우에서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돈의 2%를 수행과 봉사, 불사에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다른 불교단체나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계에 자신감을 심는 이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재가불교운동은 그 영향력을

행위 위한 보시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김동훈: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 불교계에서 무관심한 것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가(Sangha)는 출가자 집단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틀로서 바라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불교의 고립을 극복할 수 없지요. 우선 선불교로 인해 관념화된 부분을 현대사회에 맞게 과감하게 재해석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박광서: 스님들이 중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승가와 재가가 어떻게 해야

시에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불교의 교리를 사회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박광서: 자비를 떠나 불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환자를 두고 온 사람에게 야단했습니다. 요즘 불교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환자'를 버리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선우는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주는 것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불교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불교지도자, 사회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우는 결사운동을 체계화시켜 회원이 아닌 불자들에게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동훈

91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결성하기까지 민주화, 경실련 등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밟아 뛰어 이룬 결과, 91년 경불련을 창립하고 운영위원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미술', '자비로운 집', '우로 급식소', '이웃들' 등을 이끌어 오고 있다.

혜불 대응-노숙자 외국인 돕기 활동 재가불자 교육시스템 구축 급선무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교육 대계를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무엇을 위한' 불교인지, '출가'이고 '재가'인지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고민 없이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듣는 곳이 많지 않겠지요.

김동훈: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계종이 사찰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화해 놓는다면, 불교계의 흐름으로 정착될 수 있고, 불교계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

김동훈: 경불련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에 상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을 불교계에서 풀어안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타종교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또 환경운동이 '이론'이나 '주장'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경불련은 재가불교운동에 필요한 경전 어구를 결집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배포해 전쟁, 환경오염 등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 지를 고민하는 재가불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한·맘·유·학·원

캐나다 미국 중국 조기 유학, 어학연수 전문

현지 유학 경험자와 소련 경력의 현지 유학 상담원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유학정보와 수속으로 모든 유학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취급업무

- ▶ 영어·중국어
- ▶ 대학생 및 일반, 회사단체의 장·단기 어학연수
- ▶ 정규유학(한, 석, 박사), 조기유학(중, 고생)
- ▶ 서류번역, 항공 예약(대형 유학생보험)

Toronto branch
7Hayden St. #203 Toronto ON M4Y-2p2
Tel:(416)929-0175

Vancouver branch
#804-121-10th St. Newwestminster, BC V3M-3X7
Tel:(604)777-0054

L.A branch
400 South Harvard BL, #312 L.A CA 90020
Tel:(213)453-2679

Nan Jing branch
Jiang-Su-Sheng, Nan-Jing city, Han-Zhoug-Men-Da-Jie
21 Hao, 5-2-204
Tel:00186-25-650-4368

수속절차 안내

- 유학권 선택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담 요청)
- 지역과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 결정(수속계약)
- 학교공시 (중시료 또는 학비준비) - 출국시기를 예측하여 항공예약 -
- 입학허가서 취득
- (필요시) 비자신청 및 취득
- 수속결정 및 pick up 관련 결정 (미숙시 또는 홈스테이)
- (필요시 출국안내) 출국

“풍부한 경험과 현지 사무소 부서의 정확한 정보로 상담부터 출국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한맘유학원

TEL : (031)388-8426 FAX : (031)388-842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1번지 트윈프라자 2층 205호
■ 지하철: 4호선 평촌역 하차 ■ 위치: 귀인마을 역거리 골목입구 조흥은행 2층
www.hanmamuhak.com
E-mail : hanmamuhak@yahoo.co.kr

2006년이면 개교 100년, '참사람 열린교육의 도량(道場)'-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엽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한세기를 엮어온 동국대-새시대를 밝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